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특집

기 념 사

김 재 균 (한국통신학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윤 체신부 장관님, 송 자 연세대학교 총장님, 내외 귀빈 그리고 본학회 회원 여러분!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에도 오늘 한국통신학회의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제21차 정기 총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통신과학 및 정보산업의 여명기인 1974년에 한국통신학회가 창립한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1970년대의 창립 초창기는 학회 활동이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한국통신 등 본격적인 통신사업자의 등장과 체신부의 변모와 후원,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인식이 통신학회 발전의 큰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1990년대에서는 개인통신, 고속통신 등의 새로운 정보통신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학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또 발전해야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회에는 학계, 연구계, 통신사업 및 산업계 등 각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6,00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7개의 전문연구회와 8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그 동안 있었던 수많은 학술 연구발표와 논문발표, 기술세미나, 정책조사연구, 학회지 발간등은 학회 발전은 물론이고 사회 발전과 학회 회원의 자기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통신학회가 우리나라 정보통신분야의 최대 학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학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오신 각계의 회원과 역대의 임원, 위원,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배, 동료 회원들이 쌓은 빛나는 업적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학회 발전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회원들의 참여와 봉사적인 학술활동이 계속되어야 함을 다같이 명심해야겠습니다.

그 동안 학회 발전을 꾸준히 후원하고 지원해 주신 체신부를 비롯한 후원기관과 한국통신을 비롯한 특별회원사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기 총회의 일정에서는 금년도 학회 업무와 내년도의 사업 계획등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추계 종합학술발표회에서도 새로운 연구발표와 상호교환을 통해서 참석하신 회원과 학회에게 모두 유익하고 보람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마치 않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훌륭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해 주신 연세대학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학술위원, 준비위원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윤 동 윤 (체신부장관)

존경하는 김재균 한국통신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 주신 내빈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통신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
다.

돌이켜 보면 한국통신학회가 처음 창립되던 70년대 중반의 우리나라 전기통신은, 시설이나 기술, 인력
등 모든 면이 매우 낙후되어 만성적인 전화 적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강산이 두번 변하는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의 정보통신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하면서 정보사회로의 사회변혁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배경에는, 그동안 정보통신에 대한 차원높은 학술연구와 정책건의를 통해 정보통신정책
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한국통신학회의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한국통신학회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보통신은 대내적으로는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
화를 촉진하여 선진국 진입을 앞당겨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통신의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보통신사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구하는 한편,
21세기 정보사회의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국가경쟁력의 핵심기반이 될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APEC정상회담에서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아시아·태평양 지
역의 정보통신기반구조 구축을 제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이 아·태지역과 세계의 통신발전에 주
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에 대한 깊이 있는 학술연구와
세계적 동향 파악, 그리고 정책대안 제시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통신학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여러분에게 거는 정부와 국
민들의 기대는 매우 큰 것입니다.

오늘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국통신학회는 성숙한 연조에 걸맞는 모습으로 더욱 수준높은 활동을 전개하
여, 또다시 창립 30주년, 40주년을 자랑스럽게 맞이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통신학회 창립 20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
다. 감사합니다.

한국통신학회의 과거와 미래

통신학회의 발자취

민 병 기 (수정전자공업(주) 회장)

1. 발족의 당위성

통신학회가 발족하게 된 당위성을 몇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첫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선진 외국에서의 전기통신기술은 전자교환기와 위성통신 등이 등장하여 보편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이 컴퓨터와 결합됨으로써 이른바 C&C로 다가올 정보화사회로의 씩이 트기 시작하였다.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밀려 옴에 따라 전기통신분야에서의 체계적인 학술연구기관으로서의 통신학회의 설립문제가 태동되게 되었다.

둘째로, 국내적으로는 전기통신 관련 교육기관이 증가하였고 국가기술자격법에서도 통신을 전기나 전자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기술분야로 구분하게 되어 대한전기학회나 대한전자공학회와 차별화된 통신학회의 창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로 전기통신이란 국제적인 정의에 의하면 유선·무선·광선 또는 기타 전자적 방식이라는 통신매체에 의한,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또는 기타 정보라는 통신의 객체를, 전송·발사 또는 수신이라는 유통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통신매체는 통신공학, 객체인 정보는 인문과학, 유통작용은 사회과학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요소들이 필요에 따라 결합 또는 분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에 관한 학술활동은 종합과학적 특성에 입각하여 전개하여야 하므로 통신공학을 기초로 한 통신정책·통신보안시책·전기통신에 관한 국내외 법령과 통신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학술연구를 수행할 독립된 학술단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 등을 배경으로 하여 초대 회장과 차기 회장이 된 조정현, 신상각 등 48인이 모여 1974년 10월 19일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통신학회가 탄생되었다.

2. 활동상황

학회의 활동상황을 되돌아 보는데도 여러 측면이 있겠으나 현시점에서 다음의 4기로 나누어 그 발자취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맹아기(1974~1982)

이 시기는 조정현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학회는 「통신 및 그 사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를 통하여 그 종합과학적 이론 체계를 정립하고 내외에 그 학술적 개발 보급과 이론의 보편화를 꾀함으로써 통신과학 및 그 산업을 통한 인류의 복지 증진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창한 목표로 출범은 하였으나, 어느 단체든 초창기에는 고난의 길을 걷게 마련인바 우리 학회도 예외는 아니며 1982년말 회원도 364라는 아주 미미한 상태이었으며 재정면에서도 일상 정비의 지면조차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단독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1979년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 종합과학분야 학회로 가입하여 학술단체로서의 객관적인 인정을 받기도 하였다.

1976년에는 논문지를 창간하였으며, 이기간중 학회활동을 통하여 통신사업의 민영화, 통신인력의 교육방향 설정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확립 등 다가 올 정보화사회에서의 국가통신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름대로의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겠다.

(2) 기반 조성기(1983~1986)

이 기간은 신상각과 진년강회장의 재임기간이다.

1983년은 UN이 선포한 “세계 통신의 해” WCY'83 이었는데 ITU는 WCY'83 제정의 목적에서 「통신의 기반구조는 경제사회의 발전에 불가결한 요인이며 그 전체 조건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각 나라는 자기 국내의 통신기반구조의 개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삼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는바, 여기서 통신의 기반구조란 통신에 관한 제도, 법령, 시설, 종사자 및 요금 등 모든 가지적이고 형상적인 실체를 뜻하는 것이며 만약 이러한 기반구조가 완비되지 못하면 정보의 자유롭고 균형된 유통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 하였는바 이는 우리 학회의 설립 취지와도 완전 일치하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통신에 대한 국내외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다.

이 해를 뜻깊게 지내기 위하여 세계적으로는 ITU주관으로, 국내적으로는 체신부 주관하에 대대적인 각종 행사를 갖았는바 학회에서는 전기통신 국제학술대회와 데이터통신 워크샵을 ETRI와 공동주최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였고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학회의 위상 정립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학회의 존재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85년은 우리나라에 전기통신이 도입된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학회에서는 2년여에 걸쳐 한국 전기통신 100년사를 편찬하였으며 동년 9월에는 ETRI와 공동으로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사무실을 이전 확장하였고 논문지를 연 6회로 중간함과 동시에 1984년에는 학회지 “정보통신”을 창간하여 1986년부터는 연 2회로 중간하였다.

학회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산학협동의 강화라는 견지에서 부회장 1인을 증원하여 산업체에서 영입토록 하였고, 명예회장과 고문제를 채택하였으며, 회장의 장기 재임에서 야기되는 폐단을 없애고 참신하고 유능한 회장의 영입을 위하여 그의 임기를 2년 단임제로 하였다.

1986년 5월에 부산·경남지부를, 동년 6월에 대구·경북지부를, 동년 11월에는 광주·전남지부를 각각 설치하여 회세 확장을 기하였으며 1986년말에는 회원이 1,000을 돌파했고 동년 예산규모도 1억원을 넘어서는 등 확고부동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3) 성장기(1987~1990)

이 기간은 심수보와 강창연회장의 재임기간이다.

WCY'83행사와 전기통신 100년사의 발간 등으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학회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①회원배가운동 ②국제학술대회를 포함한 각종 학술활동의 강화 ③통신관련 사회과학 계열의 강화 등의 세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회원이 1990년말에 3,060이 되었으며 발표논문의 격증으로 이를 소화시키기 위하여 논문지를 연 12회로 중간함과 동시에 학회지도 6회로 발간회수를 늘렸고 이사의 수를 35인으로 증원하였다.

학회는 이제까지 각종 심포지엄, 세미나 국제학술회의와 워크샵 등 많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는바 이러한 발전과 활동으로 학회의 존재와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되자 체신부가 종래에 통신개발연구원이 집행하던 학술단체육성사업을 1990년에 우리 학회로 이관하여 집행하게 한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었다.

이 기간중 팩시밀리, 복사기 및 컴퓨터 등을 도입하여 회원관리를 비롯한 사무자동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학회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을 상당액 적립하였다는 것도 아주 고무적인 사실이었다.

1988년 4월에 전북지부, 1989년 11월에 강원지부 1990년 7월에는 제주지부를 각각 설치함으로써 지부조직을 완료하였으며 1989년에는 부회장 1인을 증원하여 지부는 지휘 감독케하였고 지부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는 전지에서 하계학술발표회를 매년 지부 소재지에서 개최하기로 하여 1988년 전주를 필두로 부산, 강릉, 대구, 광주 및 이리 등에서 개최한 바 있다.

(4) 도약기(1991~1994)

이 기간은 양승택과 김재균회장의 재임기간이다.

이 기간중 통신의 환경은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변화하였다. 국제적으로는 UR타결에 의한 국제화, 자유화, 개방화로 경제적 실리주의로 전환되었고, 통신분야에 있어서도 1997년부터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부가통신의 과감한 개방, 국제전화의 경쟁체제 도입과 제2사업자의 지정 등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CATV의 실시, PCN과 HDTV의 개발연구, 우리별 1·2호의 발사, 통신방송 위성의 발사 준비, 저궤도 통신시스템에의 진출과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의 기획 등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학회도 이러한 환경여건에 대비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하여 학술활동면에서나 운영면에 새로운 도약을 이룩한 기간이라 하겠다.

그간 적립된 기금과 양승택회장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기탁된 9,000만원을 합하여 1991년에 사무실을 1억 7,600만원에 구입하여 학회의 제1차 숙원사업인 자체 사무실의 확보를 실현시켰고, 학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직원퇴직금, 종신회비 및 기금 등을 적립하여 1994년 10월말 현재 총적립금이 1억 3,600만원을 시현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도 건실한 기반이 구축되었고 학회지의 발간도 연 12회로 증간하였다.

1993년 8월에 국내 최초로 열리는 EXPO'93을 기하여 급격히 전세계의 중심이 되어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신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월 24~26일까지 3일간 Intergrated Communication for Information Society라는 주제로 학회와 IEEE Korea Council 주최로 관련 24개국에서 제출된 270편의 논문 중 211편을 채택 APCC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끝맺추었으며 이 회의는 앞으로 참가국을 돌면서 매2년마다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학회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크게 부상되었다.

학회활동의 활성화와 유능하고 참신한 회장의 발결과 회원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견지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새로 조직된 평위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회원의 우편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 단임제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금번 박한규회장과 한영렬수석부회장이 선출되었다.

이제까지는 학회의 회계가 단일회계제도이었으나 예산면에서 외형상의 비대함을 방지하고 내실화를 기하는 견지에서 고정경비는 회비 및 논문지 등의 발간수입 등을 기간으로 하는 고정수입으로 지변하는 일반회계와 위탁연구사업관계를 특별회계로 하는 이원화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생성되는 보전비 전액을 각 항목에 따라 적립하도록 하였다.

3. 맺음말

이상과 같이 2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회원수에 있어서나, 사무실의 구입 및 다액의 적립금 등 학회의 내실화가 어느 정도 이룩되었고 국내외적인 활발한 학술활동으로 학회의 위상을 확립시켰음은 역대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학술위원회 관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 보다는 학회의 주체인 회원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활약이 그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회원의 한사람으로 여러분에게 경의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러한 회원들의 존재하는 한 학회의 발전은 기약할 수 있으며 장래가 촉망된다 하겠다.

학회의 20년간의 활동상황을 편의상 4기로 나누었으나 긴 안목으로 볼 때 학회는 이제 겨우 성년이 된 것이며 진실한 의미에서의 발전은 이제부터나 하겠다. 이를 계기로 학회는 과거를 되돌아 보면서 미비하였거나 잘못된 점은 이를 과감하게 보완 내지 개선함과 동시에 회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나라를 정보사회로 촉진시킴에 있어 학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것인가를 찾아 이를 적극 추진하는 학회가 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는 회원들은 회비의 납부와 학회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나아가서는 정보통신 전반에 걸친 왕성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명실공히 우리나라 정보통신분야 발전에 이바지하는 학회가 되어야 겠다.

최고령회원인 본인도 이 세상에서 살아질때까지 자신도 노력하겠고 여러분의 활동상황도 지켜 보겠습니다.

한국통신학회의 미래상 (학술활동)

김 성 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한국 통신 학회의 설립 목적

- 전기통신분야의 체계적인 학술/연구활동 단체

전기통신 = 정보 + 통신매체 + 유통

- 정보 및 통신공학 분야의 기술 개발
- 표준화 및 통신정책의 개발

학술 활동 현황(1)

연구회 구성(17연구회)

- 정보공학분야:

신호처리, 영상통신, 방송 및 뉴미디어, 신경회로망.

- 통신공학분야:

전송연구회, 교환연구회, 데이터통신망, 통신회로 및 부품, 마이크로파 및 전파, 전자파환경, 광통신, 위성통신, 이동통신.

- 표준화 및 통신정책 분야:

통신관련법 및 정책, 통신경영, 정보화사회, 통신표준화.

학술 활동 현황(2)

(학 회)

- 학회지: 최신 기술 동향 소개(12회/년)
- 논문지: 최신 연구 결과 발표(12회/년)
- 하계/추계 학술발표회: 최신 연구결과 발표
- 학회 차원의 강연회: 수회/년

(연구회)

- 학술발표회 및 워크샵(1회/년)
- 단기 기술강좌: 최신/핵심 기술 소개(1회/년)

• 현재 학술 활동에서의 문제점

- 학 회 지: 단편적임.
- 논 문 지: 논문의 수준이 높지 못함.
- 학술회의: 회원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함.
- 연 구 회: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함
- 표준화 및 통신정책: 체계적인 사업 추진 미흡
- 교 육: 교재 및 기술서적 출판 미흡
교과과정 모델 개발 미흡
- 기 타: 지원 인력 부족

• 논문지의 수준 향상 방안

현 황

- 논문의 수준이 높지 못함

개선방안

- 원칙 : 국제 수준의 논문지/학회지
- 엄격한 논문심사
- 영문 논문지 발간
- 우수한 연구자들의 논문

• 학술 회의 운영 개선 방안

현 황

- 회원들의 참여도가 낮음.

원 인

- 논문의 수준이 높지 못함.
- 보고 들을 거리가 없음.
- 발표자가 대부분 대학원생임.
- 학술대회의 빈도수가 잦음.
- 짧은 기간 → 관심분야를 모두 참석할 수 없음.
- 발표이외의 재미있는 프로그램 부재 → 회원간의 교제 불가능

개선방안

- 원칙 : 회원들에게 유용한 학술 대회
- 규모는 크게, 횟수는 1회 이하,
- 일정은 길게, 재미있게
- 중진 연구자들의 발표
- Tutorial의 활성화
- 중진 및 원로회원들의 적극 참여
- 궁극적으로는 연구회 중심이 되도록 유도
- 학술대회의 국제화
- APCC의 적극적인 활성화

• 연구회 운영 개선 방안

현 황

-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함

원 인

- 연구회 운영의 역사가 짧음.
- 충분하지 못한 자원
- 연구회별 회원 관리 소홀

활성화 방안

- 원칙 : 학회 중심 → 연구회 중심

- 회비의 rebate를 통한 활동비 마련
- 단기강좌의 적극적인 개최
- 다른 학회의 관련 연구회와의 교류 활성화
- 중진 및 원로회원들의 적극 참여

• 표준화 및 통신정책 분야 활성화 방안

현 황

- 체계적인 사업 추진 미흡

개선방안

- 연구회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
- 국내 타 표준화 관련 기관과의 교류
- 통신공학 관련 용어의 한글화 문제
- 표준화 및 통신정책 개발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

• 한국통신학회의 미래상

- 정보통신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학회지/논문지
- 정보통신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 정보통신분야에서 표준화작업 및 통신정책개발 선도
 - 국내 정보통신분야의 think-tank
 - 정보통신 분야의 중심학술 단체

한국통신학회의 미래상

윤 장 용 (한국통신기술(주) 본부장)

I. 서 론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통신학회 그간 장족의 발전을 하여왔다. 회원수가 5,000명을 넘었고 연간 3회의 종합학술대회, 17개의 전문연구회, 8개의 지부, 10여건의 위탁연구과제수행, 분과별 학술행사 및 연구활동등 국내의 통신학회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발전은 그간 학회를 이끌어온 원로 학자들과 회원모두의 애정 어린 협조와 지원의 결과이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국제적인 학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니 참고로 하여주시 바랍니다.

II. 한국통신학회의 현상

학회의 존립목적은 학술행사를 주관하고 논문발표의 기회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 학술관련 정보와 논문을 공급하여 회원들의 전문지식을 고양시키는데 있다고 하겠다. 또한 부수적으로 회원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여 산·학·연을 연계시키고 이를 통한 정보교류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통신학회는 존립목적에 맞게 활동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더욱 발전한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현상을 비판적으로 하나씩 분석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1 종합학술행사

종합학술대회는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여 정보교류를 하고 그간의 연구업적을 발표하고 토론하여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여야 하는데 그간의 현실은 불행히도 많이 미달했다고 하겠다. 우선 참여회원수가 너무 적다(통상 200명 미만). 그리고 논문발표장의 참석자가 극히 적어서(심한 경우는 3~4명) 발표 분위기가 침체 되었고 질문도 거의 없어서 발표의 의미가 많이 상실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종합학술대회가 석사학위 이수자나 특정연구기관의 발표 장으로 굳어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그 이유는 중진 및 원로학자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 내지 전무하고 논문의 수준 또한 그리 높지 않아서 회원들이 참여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데 있다 하겠다.

2.2 분과별 학술행사 및 세미나

종합학술행사에 비하여 분과별 학술행사는 효율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3~4개의 분과위원회가 주최한 학술행사나 세미나는 참여회원수도 2~300명에 이르렀고 행사내용도 우수하여 정보통신 발전에 기여한바 크다 하겠다. 그러나 17개의 전부분과 모두 활발한 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 일부는 연간 아무것도 가지적인 행사나 활동이 없어서 침체되었다 하겠다. 그리고 활발한 학술행사를 주최한 전부분과 위원회도 전문적인 논문발표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고 하겠다.

2.3 논문

현재 연간 12회, 매회 20편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는데 대기중인 논문이 200편 가까이되도록 논문발표지가 활성화되고 있다. 대기중인 논문편수가 날로 증가중이라 하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논문 발표 수는 그런데로 만족할만한 숫자인데 논문 수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에는 아직도 미약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하겠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수한 논문은 미국의 IEEE 같은 곳에 게재하고 그보다 약간 못한 것은 국내지에 게재하고 심사위원들의 무관심이나 적당주의가 이러한 현상을 만들고 있다 하겠다.

2.4 산·학·연 연계활동

타학회에 비하여 비교적 연계활동이 잘되고 있다 하겠다. 특히 산업체의 관심이었던 위성통신, 이동통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위한 학술행사나 세미나는 회원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고 학회의 재정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종목을 짧은 기간동안 수차례 걸쳐 비슷한 내용으로 주최한 것 말고는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에 기여한 것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물론 산업체나 연구소에서 먼저 요청하기 전에 협조나 지원을 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산업체에서 학회를 학교에 종사하는 교수나 학생들만을 위한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통신학회는 좀더 산업체와의 연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Ⅲ. 한국통신학회의 미래상

앞에서 한국통신학회의 현실과 발전되어야 할 부분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된 통신학회의 미래상을 그려보았다.

3.1 종합학술행사

한국통신학회의 회원수는 20,000명을 넘어섰고 학계는 물론 통신관련 산업체의 거의 모든 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종합학술대회는 연간 2회 열리는데 매회 참석자가 2,000명이 넘어서 개최 장소를 구하는데 학술담당이사에게 어려움을 겪었다. 종합학술대회는 2일간 열리는데 분과위원장들이 학술담당이사에게 조정 하에 가급적이면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 논문들을 엄선하여 종합학술대회를 분과별 학술행사와 성

격을 구분하였다. 예를 들면 이동통신시스템분야는 전파, 통신시스템, 전자회로, 신호처리, 반도체분야에서 이동통신관련 논문들을 한 장소에서 발표하므로 산·학·연 모두가 최신의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술논문발표장은 원로학자들도 다수 참석하여 직접 발표도 하였고 질의도 많이 하여 젊은 과학도들이 진땀을 흘리기도 하였다.

종합학술대회중 국내의 산업체에서 출품한 기기와 상품들이 전시되고 있어서 참석자들이 연구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상품을 보면서 개발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통신학회는 출품업체로부터 광고비와 학회지원비도 받아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졌다. 또한 전시회장이나 발표장에서 학교때 동창이나 옛직장 동료들을 만나 회포도 푸는 축제의 분위기였고 한쪽에서는 직원채용을 위한 회사설명회와 면담장소도 있었다. 사실상 산업체의 많은 과학기술자들은 이 부분을 더 중요시 하는것 같은 감도 들었다.

3.2 분과별 학술행사 및 세미나

종합학술대회가 전문적인 논문발표보다는 전시장을 곁들인 분야별 연결 및 통합에 치중하는 것과 달리 분과별 학술행사는 깊이 있는 주제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차분하게 토론하는 대학의 연구발표회 같은 분위기였다. 분과위원장은 연간 2회내지 4회의 발표회를 구성하여 상호 정보교환을 하였고 수시로 국내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도 개최하는데 이때는 산업체로부터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하여 최신의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3.3 논 문

한국통신학회 논문지는 분야별 구분되어 편집되었고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정밀하게 심사하여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다만 개선 되어 할 점은 심사가 너무 정밀하여 논문게재에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억울하게 탈락된다고 불평하는 회원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세계의 논문을 수록정리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공정을 기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외국에서도 인용을 하기 시작하였고 국내의 학자들은 가급적이면 통신학회지에 게재하여서 IEEE 논문지는 미국의 학술지로 국한되었다. 또한 논문을 발표할 때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손쉽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토론도 용이하게 되었다.

3.4 산·학·연 연계활동

한국통신학회의 구성원은 반수이상인 산업체 종사원이다. 산업체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학회에 먼저 의뢰하여 기본자료를 습득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학회에 의뢰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성의를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계에 있는 과학자들도 위탁을 받은 과제들을 성심 성의껏 연구개발하여 발주처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하였고 산업체도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보다는 국내의 학계나 연구계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세계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 세계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어 외국인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회사도 시장을 치열하게 공방하고 있고 외국의 저명대학의 교수들도 국내 산업체에서 연구비를 자유로이 받게 되었어서 자연스럽게 국내의 기술력도 크게 향상되었다.